

###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19>

## 습관 버리면 삼독 벗어난다

학승이 물었다.  
“옛 거울은 닦지 않아도 비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전생은 인(因)이고 금생은 과(果)야.”

問 古鏡不磨還照也無  
師云 前生是因 今生是果

선사들의 대답은 항상 짧고 간단하다. 전후의 설명은 생략하고 본질만 드러내기 때문에 그 진의를 알기 어렵다. 여기서는 옛 거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옛 거울은 사람의 근본 심성(心性)을 말한다. 심성은 우주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됐다. 사실 심성은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옛 거울에 비유한다면 존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 법이니가.

조주 스님은 심성을 옛 거울에 비유한다면 그것이 존재의 원인이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옛 거울은 원래부터 닦지 않아도 밝다는 말이다. 그것은 원래 물들지 않기 때문이다.

학승이 물었다.  
“세 개의 칼(三刀)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뻥뻥하다.”  
학승이 물었다.  
“떨어진 후에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밝고 밝다.”

問 三刀未落時如何  
師云 森森地 云 落後如何 師云 迥迥地

여기서 세 개의 칼(三刀)은 탐진치 삼독(三毒)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자기 살을 도려내는 예리한 칼과 같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칼을 차고 있으면 인생은 복잡해진다. 마치 분노, 복수, 시기, 질투, 미움, 성공, 실패 등의 갖가지 난잡한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항상 자신에 대해 탐진치 삼독의 증세가 얼마나 가셔졌는지 그것을 자주 살펴봐야 한다. 설사 탐진치 삼독이 완전히 끊어졌다 해도 도의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니다. 삼독이 끊고 끊어졌다는 생각이 마음에서 일어서지 않아도 또한 도의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아직 탐진치 삼독에서 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도와는 더욱 요원할 뿐이다.  
그런데 본래 사람의 마음은 삼독이 아무리 침범

하려고 해도 절대 침범할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삼독에 중독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습관적으로 삼독심이 일어날 뿐이다. 그러므로 습관을 제거하면 삼독에서 벗어난다. 따로 삼독을 벗어나는 고난도의 수행은 필요 없다.

학승이 물었다.  
“삼계(三界)를 벗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가두어 둘 수 없어.”

問 如何是出三界底人  
師云 籠罩不得

삼계(三界)는 욕계, 색계, 무색계이다. 욕계는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계이고, 색계는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살아가는 세계이고, 무색계는 욕망이나 물질에 대한 집착은 없지만 마음의 주의 주장이 남아 있는 세계이다. 삼계는 윤회하는 중생계이다. 도를 이루면 삼계에서 벗어난다. 즉, 욕망, 집착, 주장을 벗어나는 것이다.

### 거울은 원래부터 닦지 않아도 밝다 말 한마디에 희비가 엇갈려선 안된다

삼계를 벗어난 사람은 그 어떤 말로도 그를 동요시킬 수 없고, 그 어떤 욕설이나 감언이설로도 그를 유혹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사상으로든 그를 엮어낼 수 없다. 그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말 한마디에 마음속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사람은 아직 대 자유를 얻은 사람이 아니다.

학승이 물었다.  
“우두(牛頭) 법웅(法融) 선사가 아직 4조 도신 선사를 친견하지 않았을 때에는 백 가지 새들이 꽃을 물고 와서 공양을 드렸는데, 친견하고 난 후에는 어찌하여 백 가지 새들이 꽃을 물고 와서 공양드리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세간에 응하는 것과 응하지 않는 것의 차이이다.”

問 牛頭未見四祖 百鳥銜花供養 見後爲什? 百鳥不銜花供養  
師云 應世不應世

우두 법웅 스님은 출가해 49세가 되자 건강 우두산 유서사(幽棲寺) 북쪽 바위 아래에 선실(禪室)을

짓고 살았다. 이때 열심히 수행하는 것을 보고 갖가지 새들이 꽃을 물고 와서 공양을 올렸으므로 사방에 꽃이 쌓여있었다. 하루는 4조 도신 스님이 와서 법 일러줌을 받고 심오(心要)를 깨달았다. 이로부터 사방의 도속(道俗)들이 물려와 교화를 받게 되니 문인이 100인이 넘었다.

그런데 도신 스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는 이상하게 새들이 꽃을 물고 오지 않았다. 법웅 스님은 64세(652)에 건초사(健初寺)에서 죽었다. 후에 법웅의 선은 우두선(牛頭禪)이라 해 크게 흥성했다.

마음에 신비로움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고, 고고한 수행자가 되려는 마음이 있으면 아직 때가 못은 것이다. 즉, 옳고 그른 것이 끊어지지 않은 유심(有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해도 선선과 같은 경지는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새들도 그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채고 갖가지 꽃을 물고와 공양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선사의 법문을 듣고 한번 깨달아 마음에서 서비심이 끊어지고 평등심이 회복되면 마음은 투명해 마치 허공과 같이 맑아지게 된다. 그러면 새들은 절대 깨달은 자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다. 대저 선사의 마음은 항상 무심(無心)이어서 귀신도 알아채지 못하는 데 어찌 한낱 미물인 새들이 선사의 마음을 알겠는가. 그러하니 꽃이 쌓이지 않는 것이다. 꽃이 없고 공양물이 없는 것은 그 선사의 마음이 그만큼 맑아진다는 것을 반

증한다.  
학승이 물었다.  
“백운이 자재로울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어찌 밤바람이 처처에 한가롭게 부는 것과 같겠는가?”

問 白雲自在時如何  
師云 爭似春風處處閑

백운은 높은 하늘에서 이리저리 자유자재로 떠다닌다. 그러나 춘풍은 지상에서 불면서 농부의 땀방울을 식혀준다. 백운이 이상이라면 춘풍은 현실이다. 백운처럼 자유자재한 것도 좋지만 자재로운 속에서 남에게 이익을 주는 춘풍이라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는 자유자재한 백운에 대한 대구(對句)로서 춘풍을 말한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백운? 좋을찌구. 백운도 좋지만 춘풍도 또한 좋지 않는가?” 하는 간단한 대구로 보는 것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① 선어록의 출현

## 성전과도 같은 성격 지니고 있어

선어록(禪語錄)은 선종의 어록이라는 뜻이다. 보다 넓은 의미로는 선전(禪典)·선적(禪籍)·선서(禪書) 등으로 불리면서 선에 대한 일반적인 전적을 가리킨다. 때문에 여기에는 선리(禪理) 및 사상류(思想類)·어록류(語錄類)·전등사서류(傳燈史書類)·청규류(淸規類)·공안집류(公案集類)·수필류(隨筆類) 및 잡류(雜類)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선자의 어록에 한정된다.

그 어록은 선자의 평소 설법을 제자 혹은 제삼자가 기록한 것이다. 때문에 저술과 같은 일정한 목적 내지 의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 내지 직접 법문을 듣는 제자들을 교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 적어도 법문을 하는 선자 자신의 의도는 물론이고, 그 밖에 선자 자신의 의도가 아닐지라도 법문을 기록한 당사자는 스승의 말씀을 오랫동안 남겨서 두고두고 가르침으로 삼으려는 목적이 개입돼 있다. 또한 많은 문중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각자의 문중에 대한 홍보 내지 스승에 대한 권위를 드러내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

어록이란 조사들의 설법과 제자들의 문답 등을 다른 제자가 듣고 수시로 기록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연필을 들고 저술한 것과는 달리 반드시 조사의 설법을 듣고 기록한 것으로서 그 제자들에게는 일종의 성전과도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간혹 제자가 기록한 것에 대해 조사 자신이 직접 서문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성전에 이뤄진 것도 있고 사후에 이뤄진 것도 있다. 따라서 어록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그것을 기록한 제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수정 내지는 보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 성격을 살펴보면 법어(法語) 및 수시로 행해지는 제자들의 문답상량(問答商量) 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의 요약적인 성격이 강해 어록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록의 당사자에 대한 생애가 아울러 수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전해지고 있는 어록의 대부분은 특별히 어록 당사자의 일대기를 붙이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기 때문에 어록이 어록으로서 충분히 이해되기 위해서는 어록의 당사자에 대한 법맥(法脈)과 종파(宗派) 내지는 당시의 사회여건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의 문헌을 어록이라는 이름으로 총괄한 것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이 말이 처음 나타난 것은 <송

고승전(宋高僧傳)>(988) 권20 황벽희운전(黃檗希運傳)의 말미에 ‘그 어록이 세상에 행해져 있다’라고 하고, 동 권11 조주종심전(趙州從諗傳)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돼 있다. 또한 이보다 오랜 <조당집(祖堂集)>(952)에는 행록(行錄)·행장(行狀)·별록(別錄) 등의 용어가 있지만 어록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다.

어쨌든 어록이라 불린 것은 <송고승전> 이후의 것이지만, 그와 같은 특수한 형식과 내용을 지닌 문헌이 출현한 것은 마조도일(馬祖道一: 708-788) 이후에 해당한다. 본디 그와 같은 특수한 설법양식을 지닌 상당(上堂)과 제자와의 대화를 기록한 문헌이 출현한 것은 이 계통의 사람들에게 의한 것인데, 종래의 불교학의 전통을 벗어나서 직접 집중 속에 파고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어느 세 종래의 불교문헌의 영역에 멈추지 않고 새로운 내용에 어울리는 표현을 필요로 했다.

마조도일 이후의 선은 경론의 문헌적 연구를 떠나 일상상의 언행에 즉한 것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이 다시 종래의 경론과 같은 역할을 지닌 것으로 대체됐던 것이다. 오히려 거꾸로 종래의 경론을 붓다의 어록으로까지 간주하게 됐다. 가령 <보림전(寶林傳)>(801)의 첫부분에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의 전문(全文)이 수록돼 있는 것은 그러한 경전관의 변천을 보여주고 있다. 불림문자라는 것은 단순한 경전의 부정이 아니라 그 주석적 연구에 대한 방법의 구별을 의미한다.

이미 달마는 자기의 입장을 ‘교에 의지해 종지를 깨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것은 붓다의 경전을 인간의 언어로서 이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속고승전(續高僧傳)>(645)에 달마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러한 인간언어를 파악함으로써 그 종지의 내용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선인(先人)의 어록을 존중하는 태도는 이론보다는 사실 그 자체를 제일로 삼는다.



禪宗圖



김호귀

동국대학교 선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박사  
現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및 선학과 강사

주요 저서 및 역서로는 <육조선 입문> <선 문답의 세계> <조동선요> <계승으로 풀이한 금강경> <현대외산> <선과 교의 통화> 등이 있다.



##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철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들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발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려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인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 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흥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도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중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엮으시라.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리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회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발, 만신님을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중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